

대구 국제섬유박람회에 35개국 참가

지역 최대 섬유산업 박람회인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Preview in Daegu)가 3월11일 대구 엑스포에서 막을 올리고 4일간의 전시일정에 들어갔다.

대구시와 PID사무국 등에 따르면, 2009년 8회를 맞는 PID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참가기업과 바이어 수가 2008년에 비해 증가했다.

국내 섬유관련 기업들은 전시회에 그치기보다는 마케팅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분위기 덕에 전년대비 15%정도 증가한 254곳이 460여개의 부스를 꾸몄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은 유기농 목화 면제품, 닥나무 섬유를 이용한 한지사 제품에 관심이 쏠렸고, 동작기능을 활성화시킨 기능성 유니폼이나 천연염색제품들도 눈길을 끌었다.

해외 바이어도 2008년 1600여명에서 10% 정도 늘어난 1800명 가량이 참가 등록을 마쳤으며 타이완과 일본 의류기업들과 동대문상가연합 등도 대거 참가했다.

2009 PID에서는 타이완 섬유연맹의 <우수기능성 섬유제품 세미나>, 이탈리아 트렌드 정보기업 이탈텍스의 <2010 S/S 패브릭 트렌드 및 2010/11 F/W 전망 설명회>, 한국 패션센터의 <2010 S/S 트렌드 설명회>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9/03/11>